

柳宗元 「乞巧文」과 韓愈 「送窮文」 優劣論*

- 문장 구도분석을 중심으로 -

고광민**, 박준수***

<目 次>

1. 들어가며
2. 揚雄 「逐貧賦」의 구도 분석
3. 柳宗元 「乞巧文」의 구도 분석
4. 韓愈 「送窮文」의 구도 분석
5. 나가며

1. 들어가며

동시대를 살았던 뛰어난 文人들을 비교하는 것은 후대 文人들의 주된 비평 항목이다. 특히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누가 더 잘 썼는가?' 하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兩者의 비교를 통해서 각자의 글쓰기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唐나라의 韓愈와 柳宗元은 모두 古文의 大家이며 古文運動의 동지이다. 이들에게는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산문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고문 창작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였음을 설명해준다.¹⁾ 두 사람의 여러 산문 작품들 중에 韓愈의 「送窮文」과 柳宗元의 「乞巧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양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1) 羅聯添은 「韓柳爲文相角」이라는 글에서 韓愈와 柳宗元이 서로 경쟁적으로 쓴 작품이 총 29종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 중에는 「送窮文」과 「乞巧文」 이외에 「進學解」와 「答問」, 「巧者王承福傳」과 「種樹郭橐駝傳」, 「平淮西碑」와 「平淮夷雅」 등이 있다. 羅聯添, 『唐代四家詩文論集』, 臺北, 學海出版社, 1996년, 139-142쪽.

文」은 후대 문인의 品評에 자주 등장한다. 두 문장은 모두 揚雄의 「逐貧賦」에 淵源을 두고 있으며²⁾ 가설 문답의 형식으로 懷才不遇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韓愈와 柳宗元이 우연의 일치로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문장을 썼다기보다 경쟁적인 의식을 갖고 창작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유사한 형식과 내용 때문에 후대 비평가들은 그 優劣을 평가하는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 淸의 儲欣은 두 작품의 優劣을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韓愈의 「送窮文」은) 揚雄의 「逐貧賦」, 柳宗元의 「乞巧文」과 같은 논조이다. 관직 살이가 험난하여 憤世嫉俗의 감정을 표출했다. 또한 스스로 자책하였지만 사실 스스로를 칭찬하였는데, 이 점은 「進學解」와 같다. (「送窮文」을) 「乞巧文」과 비교해보면 문사는 柳宗元에 미치지 못하나 문장의 기세는 柳宗元보다 웅장하다.³⁾

儲欣은 文辭와 氣勢를 근거로 두 문장의 우열을 평가하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두 문장을 비교할 정도로 연원이 동일하고 내용과 형식이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열 평가는 다른 비평가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明의 茅坤은 「乞巧文」에 대해 “그 문장은 韓愈의 「送窮文」과 대등하지만, 문장의 지위는 한 수 아래다”라고 했다.⁴⁾ 淸의 何焯은 「乞巧文」을 評하면서 “(「乞巧文」은) 韓愈의 「送窮文」에 압도되었다. 식견이 뛰어나지만 문사는 역시 (「送窮文」을) 쫓아갈 수 없다”고 했다.⁵⁾ 이와 달리

2) 洪邁는 『容齋詩話』 上卷15에서 “韓文公의 「送窮文」과 柳宗元의 「乞巧文」은 모두 揚雄의 「逐貧賦」를 모방했다(韓文公「送窮文」, 柳宗元「乞巧文」, 皆擬揚子雲「逐貧賦」).”이라고 했고, 淸의 林雲銘은 『韓文起評語』 卷八에서 「送窮文」을 評하면서 “揚雄의 「逐貧賦」, 柳宗元의 「乞巧文」과 같은 논조이다(與揚子雲「逐貧」, 柳子厚「乞巧」同調)”라고 했다. 吳文治, 『韓愈資料彙編』, 臺北, 學海出版社, 1984年, 360쪽 재인용. 羅聯添, 『韓愈古文校注彙集』, 臺北, 國立編譯館, 2003年, 4523쪽 재인용.

3) “與揚子雲「逐貧」, 柳子厚「乞巧」同調, 因仕路淹蹇, 抒出一肚皮孤憤耳. 又, 自訴實自譽也, 與「進學解」同. 較之「乞巧」, 辭遜於柳而氣雄於柳.”儲欣, 『韓昌黎文評點注釋』 卷二. 羅聯添, 『韓愈古文校注彙集』, 臺北, 國立編譯館, 2003年, 2984쪽 재인용.

4) “其文與昌黎之「送窮」相上下, 而所占地位下一格.” 吳文治 編, 『柳宗元資料彙編(下)』, 北京, 中華書局, 2004年, 674쪽 재인용.

5) “爲「送窮」所壓, 識殊, 詞亦不能追也.” 同注 4, 353쪽 재인용.

林紓는 「乞巧文」을 평가하며 “작은 제목 하나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造語가 매우 참신한 점은 韓愈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여 「乞巧文」을 「送窮文」과 대등하다고 평가했다.⁶⁾ 이들 역시 儲欣의 경우처럼 文辭, 氣勢, 識見, 造語 등 서로 다른 근거로 우열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도 서로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 문장은 우열을 평가하는 일은 흥미로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두 작품의 優劣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평가 항목 중에 특히 문장 구도적 측면에 국한하여 전체적인 구도의 배치와 기세 형성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문장 구도 분석 방법으로 章法學을 사용하고자 한다.⁷⁾ 章法學은 문장구도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 방법을 근거하면 문장의 구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필자는 우선 두 작품의 淵源이 되고 있는 揚雄의 「逐貧賦」를 분석하여 문장 구도의 특징을 고찰하고 柳宗元과 韓愈가 어떻게 이를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문장 구도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었는가 하는 점과 장법 사용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 지를 살펴 두 작품의 優劣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위의 방법을 통해 우열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한 측면에서의 優劣일 뿐 문장의 전체적인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 다만 필자가 장법학을 통해 우열을 나눔으로써, 前代 비평가들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의 일부분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작품 분석의 참신한 방법과 문학 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6) “以小題目爲大文字, 造語橫空盤硬, 不下昌黎.” 林紓, 『韓柳文研究法』, 臺北, 廣文書局, 1980년, 96쪽.

7) 章法은 문장의 형식을 꾸미는 방법을 지칭하며, 章法學은 부분적인 수사기교가 아닌 하나의 작품(詩, 詞, 散文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章法學 연구자들은 「질서」, 「변화」, 「연결」, 「통일」을 문장 형성의 골격으로 삼아 이를 근거로 「因果」, 「正反」, 「賓主」 등 약 40종의 문장 구도를 수립하여 문장의 형식을 분석하고 있다. 仇小屏, 『篇章結構類型論』, 臺北, 萬卷樓, 2000년, 13-15쪽.

2. 揚雄「逐貧賦」의 구도 분석

揚雄의 「逐貧賦」는 제목에 賦의 명칭을 사용했지만, 貧을 의인화 시켜 자신의 懷才不遇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設論體 辭賦로 분류할 수 있다.⁸⁾ 비록 「送窮文」과 「乞巧文」이 詞賦 형식을 근거했다고 하지만 두 문장과 「逐貧賦」는 형식의 차이가 있어서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逐貧賦」의 구도 분석을 통해 「送窮文」과 「乞巧文」의 구도가 「逐貧賦」의 구도를 어떻게 변형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逐貧賦」는 네 단락으로 구분된다. 먼저 序에서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설명하였고, 두 번째는 貧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떠날 것을 종용한다. 세 번째는 이에 대한 貧의 대답이며, 마지막은 亂의 형식으로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네 부분 중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주인과 貧의 一問一答이다. 우선 주인의 貧에 대한 불평을 보자.

①너는 六極의 하나로 荒野에 버려져 용렬한 자를 좋아하고 형벌과 살육을 자행한다. 애들도 아닌데 흉장난을 좋아한다. 이웃도 아닌데 옆에서 붙어 산다. 은혜를 기리기 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義를 가벼운 비단 보다 얇게 여긴다. 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호통을 받는다고 해서 물러서지도 않는다. 이렇게 오래도록 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②남들은 다 비단옷을 입는데 ③나는 배옷조차 온전치 못하고, ④남들은 다 쌀밥을 먹는데 ⑤나만은 콩깍지를 먹는다. ⑥가난하여 보물이라곤 없으니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까? 친척들의 잔치에서도 나는 즐겁지가 않다. 짐을 지고 걸어 다니면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는다. 해야 할 일이 백 가지나 있어 손발에 굳은살이 박였다. 김매고 복돋우느라 온 몸에 땀이 가득하다. 친구들도 다 끊겨 벼슬살이도 힘들다. ⑦이게 다 누구 탓

8) 『文選』 45권에는 「設論」이라는 항목으로 東方朔의 「答客難」, 揚雄의 「解嘲」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가상의 문답 형식으로 懷才不遇를 표현하고 있다. 「逐貧賦」는 『文選』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의 문답 형식과 懷才不遇를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어 設論體 辭賦로 분류할 수 있다. 이주혜의 「悲士不遇 문학 전통과 韓愈의 設論體 사부」에서도 「逐貧賦」는 기존의 문인들의 詠貧 전통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고 設論體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李珠海, 「悲士不遇 문학 전통과 韓愈의 設論體 辭賦」, 『중국어문학논집』 45, 2007년 8월, 354쪽.

이냐? 바로 네가 그렇게 한 것이지! ⑧너를 피해 멀리 숨어 곤륜산 꼭대기까지 기다라도 너는 다시금 나를 따라와 훨훨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⑨너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바위굴 속에 몸을 숨겨도 너는 다시 나를 따라와 저 높은 언덕을 오른다. ⑩너를 피해 바다로 가 서 바닷물에 배를 띄워도 너는 다시금 나를 따라와 뗏다 가라앉았다 한다. ⑪내가 가면 너도 움직이고 내가 조용하면 너도 쉰다. ⑫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가? 이제 당장 이곳을 떠나 더 이상 오래 머무르지 마라.⁹⁾

위의 내용을 장법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因	因1		①너는 六極 중에 하나로 ~ 무슨 의도에서인가?
	果	反	②남들은 다 비단옷을 입는데
		正	③나는 벼옷조차 온전치 못하고.
		反	④남들은 다 쌀밥을 먹는데
		正	⑤나만은 콩깍지를 먹는다.
	正	⑥가난하여 보물이라곤 없으니 ~ 벼슬살이도 힘들다.	
	因1		⑦이게 다 누구 탓이나? 바로 네가 그렇게 한 것이지!
	因2	目1	⑧너를 피해 멀리 숨어 ~ 훨훨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目2	⑨너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 저 높은 언덕을 오른다.
		目3	⑩너를 피해 바다로 가 ~ 뗏다 가라앉았다 한다.
凡		⑪내가 가면 너도 움직이고 내가 조용하면 너도 쉰다.	
果		⑫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 오래 머무르지 마라.	

위 문장의 핵심은 '貧 때문에 못 살겠으니, 어서 떠나라'는 것이다. 위의 장법구도를 다시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9) “汝在六極，投棄荒遐。好爲庸卒，刑戮是加。匪惟幼稚，嬉戲土沙。居非近鄰，接居連家。恩輕毛羽，義薄輕羅。進不由德，退不受呵。久爲滯客，其意謂何？人皆文綉，余褐不完，人皆稻粱，我獨藜藿。貧無寶玩，何以接歡？宗室之燕，爲樂不繁。徒行負負，出處易衣。身服百役，手足胼胝。或耘或耔，霑體露肌。朋友道絕，進宦凌遲。厥咎安在？職汝爲之！舍爾遠竄，崑崙之顛，爾復我隨。翰飛戾天，舍爾登山，巖穴隱藏，爾復我隨。陟彼高崗，舍汝入海，汎彼柏舟，爾復我隨。載沉載浮，我行爾動，我靜爾休。豈無他人，從我何求？今汝去矣，勿復久留！”嚴可均校輯，《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卷52，北京，中華書局，1995年。

因	因	貧으로 인한 궁핍함
	果	내가 힘들다
果		貧은 떠나라

위에서 사용된 장법 구도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原因과 結果의 因果法¹⁰⁾을 이중으로 사용하였다. 주인이 貧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근거가 확실할수록 逐貧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揚雄은 因¹⁾과 因²⁾에서 貧의 특징과 끈질기게 자신에게 붙어 있는 貧에 대해 설명하였고, 果에서는 이 때문에 얼마나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 기술하였다. 자신의 궁핍한 모습(果)을 설명하면서 揚雄은 正反法을 사용하였다.¹¹⁾ 反에서 타인들의 출세를 설명하고, 正에서 자신의 궁핍함을 드러냄으로써 兩者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궁핍함의 정도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揚雄은 因²⁾에서 凡目法을 사용하였다.¹²⁾ “내가 가면 너도 움직이고 내가 조용하면 너도 쉰다(我行爾動, 我靜爾休).”는 총체적인 내용(凡)과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目)를 설명하면서,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다니는 貧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체적으로 세 겹의 장법 구도를 사용하여 貧의 모습과 자신의 궁핍함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逐貧의 타당한 이유를 제기하였다. 비교적 다양한 장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변화를 주었지만 장법 사용상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우선, 正反法의 사용에 있어서 正(자신의 빈곤함)과 反(타인의 풍요로움과 출세)의 대립구도를 만들 때, 출세와 빈곤을 단지 ‘옷’과 ‘음식’에만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두 항목으로도 자신의 빈곤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빈곤의 모습을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설

10) 因果法은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조합되어진 장법을 말한다(由一因一果所組合而成的一種章法)” 陳滿銘, 『章法學綜論』, 臺北, 萬卷樓, 2000년, 23쪽.

11) 正反法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나란히 배열하여 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반대되는 재료를 통해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주체의 설득력과 감화력을 높이는 장법이다(將極度不同的兩種, 或兩種以上的材料並列起來, 作成強烈的對比, 藉反面的材料襯托出正面的意義, 以增強主旨的說服力與感化力的一種章法).” 同注 10, 28쪽.

12) 凡目法은 “동일한 사건, 경물, 감정, 이치를 서술할 때, 「총괄」과 「지엽」을 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일종의 방법이다(在敘述同一類「事」, 「景」, 「情」, 「理」時, 運用了「總括」與「條分」來組織篇章的一種章法).” 同注 10, 28쪽.

명했다면 궁핍의 결과(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正反 대립의 분량에 있어서도 正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고 反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어 正反의 극렬한 대립을 형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두 번째로 凡目法을 사용하여 자신을 쫓아다니는 貧의 모습을 구체화하였지만, 세 개의 目으로 제시한 ‘지역’, ‘산’, ‘바다’ 등은 장소만 달리한 동일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는 賦의 수사기교인 排比와 鋪陳의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貧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보완되었다면 ‘나의 궁핍함(果)’이 더욱 구체적이고 강하게 표현되어 逐貧의 염원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逐貧에 대한 주인의 강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인의 불평에 대해 貧은 다음과 같이 응한다.

①네, 네. 주인님께 쫓겨나는 마당에 말을 더 해봐야 웃음거리만 되겠지요. 그러나 가슴 속에 품은 말이 있어 다 하고 싶습니다. ②옛날 나의 조상께서는 밝은 덕을 펼치시어 요임금을 보좌하였고, 모범이 되겠노라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은) 흙으로 만든 계단에 띠풀 얹은 지붕, 조각도 없고 장식도 하지 않았지요. ③그러나 말세 이르러 세상이 혼미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富를 탐하여 구차하게 얻으려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며 자만하고 교만스레 굴었습니다. 옥으로 대를 만들고 瓊으로 정자를 지어 웅장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술을 쏟아 부어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쌓아 산을 만들었습니다. ④이에 고니처럼 떠나가 다시는 그 조정을 밟지 않았지요. 제 몸을 세 번 돌아보건대 아무런 허물이라곤 없었습니다. ⑤그대의 집에居하면서 산처럼 큰 복록을 드렸습니다. ⑥나의 큰 덕이랑 잊으시고 작은 원망만을 기억하시는군요. ⑦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어 젊어서부터 습관이 된 덕분에 추위 더위에도 끄떡없으니, ⑧신선과도 같은 壽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⑨桀임금이나 도척 같은 악당들은 나에게 관여하지 않고, 탐욕스런 무리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⑩그래서 남들은 겹겹이 가려놓고 지내지만 ⑪나는 밖에 드러내놓고居할 수 있지 않습니까. ⑫남들은 모두 두려워 별별 떨지만 ⑬나만은 아무 근심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¹³⁾

13) “貧曰唯唯。主人見逐，多言益嗤。心有所懷，願得盡辭。昔我乃祖，宣其明德，克佐帝堯，誓爲典則。土階茅茨，匪厠匪飾。爰及季世，縱其昏惑。饕餮之群，貪富苟得。鄙我先人，乃傲乃驕。瑤臺瓊榭，室屋山高。流酒爲池，積肉爲嶠。是用鵠逝，不踐其朝。三省吾身，謂予無咎。處君之家，

위 문장을 장법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因	賓	正	①네, 네. 주인님께 쫓겨나는 마당에 ~ 다 하고 싶습니다.
		反	②옛날 나의 조상께서는 ~ 장식도 하지 않았지요.
	主	正	③그러나 말세 이르러 ~ 고기를 썰어 산을 만들었습니다.
		反	④이에 고니처럼 떠나가 ~ 허물이라곤 없었습니다.
果1	因	正	⑤그대의 집에 거하면서 산처럼 큰 복록을 드렸습니다.
	反	⑥나의 큰 덕이랑 잊으시고 ~ 기억하시는군요.	
果2	因	正	⑦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어 ~ 끄떡없으니.
	果	正	⑧신선과도 같은壽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反	⑨桀임금이나 도척 같은 악당들은 ~ 괴롭히지 않습니다.
		反	⑩그래서 남들은 겹겹이 가려놓고 지내지만
		正	⑪나는 밖에 드러내놓고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正	⑫남들은 모두 두려워 벌벌 떨지만		
正	⑬나만은 아무 근심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逐貧에 대해 貧은 ‘그대는 나로 인해 복은 받았다’라고 하며 대립한다. 주인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貧을 쫓아내려 하였기에, 貧 역시 주인의 궁핍함이 사실 축복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때문에 위의 내용은 貧으로 인한(因) 주인의 혜택(果)을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주인의 대화 내용과 같이 因果法을 사용하였다. 因에서는 賓主法¹⁴⁾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조상의 훌륭한 모습을 통해 자신이 은덕을 베푸는 것을 부각시켰다. 貧에서는 각각 正反法을 사용하여 자기 조상들의 훌륭한 모습과 자신의 올곧은 모습(正)을 세태의 그릇된 모습(反)과 正反法으로 대비시켰다. 主에서도 역시 正反法을 사용하여 ‘貧이 내린 은덕(福祿如山)’과 ‘주인의 忘德(忘我大德)’을 正反로 대립시키며 은덕을 부각

福祿如山. 忘我大德. 思我小怨. 堪寒能暑. 少不言焉. 寒暑不忒. 等壽神仙. 桀跖不顧. 貪類不干. 人皆重蔽. 子獨露居. 人皆怵惕. 子獨無虞!” 同注 9.

14) 賓主法은 “보조 재료인 貧을 활용하여 주제료인 主를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主旨를 전달하는 장법의 일종이다.(運用輔助材料[貧], 來凸主要材料[主], 從而有力地傳達出主旨的一種章法)” 同注 10, 28쪽.

시켰다. 果1과 果2에서는 각각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것과 '근심 없이 산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果1에서는 다시 因果를 사용하여 '젊어서의 고생(因)'으로 '오랫동안 장수한다(果)'고 하였고, '타인들이 괴롭히지 않아(因)', '드러내 놓고 편하게 산다(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러내 놓고 편하게 산다(果)'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타인들의 괴로운 삶(反)'과 '자신의 편안한 삶(正)'을 正反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세 겹의 장법 구도를 설정하여 세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의 괴로움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장법 구도상 미흡한 점이 보인다. 우선 貧의 응답의 핵심은 자신이 '큰 은혜를 내렸음'을 강조하는데 있다. 하지만 因에서는 貧의 조상 이야기를 배경(賓)으로 하여, 貧이 내린 은덕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상의 청렴함과 貧이 주인에게 내린 은덕은 그 관련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관계성의 헐거워짐은 구도의 밀접함에 저해되고, 결국 貧의 恩德을 설명하는데 적절함이 떨어지는 부가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다. 또한 貧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당시 세태를 비판한 것(反) 역시 貧이 내린 은덕과는 더욱 거리가 생기게 된다. 두 번째는 貧이 내린 은덕의 결과이다. 貧이 큰 복을 내렸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단지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것과 '드러내 놓고 편하게 산다'는 것뿐이다.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과가 빈약해 보인다. 또한 마지막에 사용된 두 개의 正反 구도는 유사한 내용을 나열하는 辭賦의 排比와 鋪陳의 특징은 드러나지만 양자의 연관성과 긴밀성은 떨어져 보인다. 전체적으로 장법 구도의 긴밀한 관계성이 떨어져 逐貧에 대한 강한 저항의 기세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주인의 逐貧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이에 대한 貧의 강한 부정이 없어 극렬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貧의 응답을 듣고 "나는 자리를 피해 잘못을 사죄하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 의로움을 들으면 바로 따를 것이며, 오래도록 그대와 거하며 끝내 꺼려하지 않으리오'"¹⁵⁾라고 하며 逐貧의 의지를 거두는 주인의 모습은 어딘가 뜬금없고 작위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15) "余乃避席, 辭謝不直, '請不貳過, 聞義則服, 長與爾居, 終無厭極.'" 同注 9.

3. 柳宗元 「乞巧文」의 구도 분석

柳宗元の 「乞巧文」의 내용은 揚雄의 「逐貧賦」와 다소 다른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逐貧賦」는 자신에게 붙어 있는 貧을 쫓아 버리려는 주인과 貧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柳宗元の 「乞巧文」은 주인이 자신의 '매우 서투름大拙'에 불만은 갖고 天孫(직녀)에게 '뛰어난 솜씨(巧)'을 구하는 내용이다. 「逐貧賦」가 「힘드니 떠나라」 → 「그대에게 오히려 축복이다」의 구도라면, 「乞巧文」은 「내가 大拙하니 巧를 달라」 → 「拙이 너에게 복이다」의 형식이다. 다소 다른 듯 보이지만 「乞巧文」의 '뛰어난 솜씨를 구하는 것(乞巧)'과 '서투름을 쫓아 보내는 것(逐大拙)'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乞巧文」 역시 네 단락으로 나뉘진다. 乞巧하게된 상황 설명과 乞巧하는 주인의 말 그리고 天孫(직녀)의 응답과 주인이 후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형식 역시 「逐貧賦」와 동일하다. 때문에 「乞巧文」은 「逐貧賦」의 '逐貧'을 '乞巧'로 변화시켰을 뿐 그 형식은 동일하고 내용도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逐貧賦」와 같이, 「乞巧文」의 주된 내용은 역시 주인과 天孫의 一問一答에 있다. 우선 주인이 乞巧하는 내용을 보기로 한다.

①저는 매우 둔하여, ②지혜로운 이도 저를 교화시키지 못하고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며, 위엄이 있는 이도 바꾸지 못하고, 관대한 이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③천지의 도량은 바다와 산악을 포용하는데, ④저의 몸은 작디 작는데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⑤개미는 개밧둑에서 自適하고 달팽이는 껍질 속에서 쉬며, 거북이, 자라, 소라, 조개들도 모두 숨을 곳이 있습니다. ⑥그런데 저는 만물의 영장인데도 나아가나 물러나 오직 모욕뿐입니다. ⑦방황하면 ⑧미쳤다고 하고 ⑨조심하면 ⑩아침한다고 하며, ⑪편안해하면 ⑫속인다고 하고 ⑬태연하면 ⑭부끄러운 데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⑮남들도 몸이 있지만, 그들은 움직이면 언제나 타당하고 남과 어울리면 웃음을 얻으며, 넘어져도 좋게 보아줍니다. ⑯제가 존중하고 가깝게 여기는 이에게는 ⑰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⑱어떤 이는 변절하여 형세를 따르고 이익을 노려 빈틈을 뚫습니다. ⑲제 마음이 몹시 중요하는 이를 ⑳남들은 뛰어났다 여깁니다. ㉑중요심을 참고 좋아하는 척하면 ㉒듣기 좋은 칭찬이 따라 옵니다. ㉓어찌하여 제 마음을 붙들어 매어 늘 변치 않게 하십

니까? ㉔남에게 반대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이를 저는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명예가 떨어지고 목숨이 끊어져도 알아주는 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㉕어떤 이는 손뼉치고 남을 조롱하니 오만한 듯한데, ㉖귀한 분은 좋아하며 이를 보이며 웃습니다. ㉗제가 옆에서 보고 놀라고 떨리지만 ㉘그러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㉙머리 조아리고 기어 다니면서 말은 께변을 늘어놓아, 저는 웅크려 부끄러워하지만, ㉚그러는 그들은 매우 즐거워합니다. ㉛제가 만약 흉내라도 내면 ㉜노한 눈길이 제게 모입니다. ㉝그들은 실로 대단한 기교를 지녔는데 ㉞저의 둔함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㉟王侯의 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짓어대는 獯豸이라는 놈이 있는데, 제가 백 보 가까이만 다가가도 숨이 가쁘고 머리에 땀이 나며 흘려보다가 되돌아 도망치며 혼비백산 합니다. ㊱그러나 신이 난 기교 좋은 자들은 천천히 문안에 들어가 멋대로 헛소리를 합니다. 폐안이 떼거지로 꼬리를 늘어뜨리며 온갖 사나움이 모두 흠여집니다. ㊲세속의 길은 어둡고 험하여 칠혹 속을 걷는 듯하며,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아 이리저리 부딪히니, 귀신도 겁내고 성인과 지혜로운 이도 위험 속에 떨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스스로 바로 통하며 이르는 곳마다 한결같습니다. 그 무슨 재주로 좌우로 다니며 걱정이 없단 말입니까? 하늘이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㊳단지 저에게만 인색하시어 항상 모욕당하고 쫓겨나게 하십니까? ㊴어떤 이들은 말도 많고 방자하며 아무렇게나 떠들면서,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미리 알고, 미워하는지 아끼는지를 조용히 헤아려서, 입술 한번 떴면 남의 속마음까지 바로 꿰뚫어 말합니다. 짐계로 짐은 듯 들러붙어 죽어도 변치 않는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쓸개 속까지 깊이 파악하여, 열심히 뛰며 붙들어둡니다. 그가 비록 물러난 척하지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㊵단지 천손(적녀)께선 제 허만을 묶어, 억눌리고 억울한 사연을 병어리인 양 말 못하게 하고, 눈이 찢어지게 화가 나고 피가 흘러도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니, 어찌하여 부여하시는 것이 이처럼 차별이 있으십니까? ㊶눈부시고 어지럽게 文彩를 이루고, 자질구레한 말로 對偶를 이루며, 黃자로 白자에 對句하고, 새소리가 바람에 날리듯이 소리를 맞춥니다. 네 자와 여섯 자로 짝을 짓고, 생각과 표현은 수놓은 비단과 같으며, 宮調를 낮추고 疇調로 높이니 笙簧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는 즐겁게 춤을 추고, 칭찬의 말은 천둥처럼 울립니다. ㊷그런데도 단지 제 마음만은 가리시어, 낡고 추한 글에 만족하도록 하셨습니다. ㊸어리석고 어둡고 거칠어서, 질박하고 둔하며 말라 썩은 듯한 글을 쓰는 것은, 한 때를 기약하지 않고 유구한 미래를 기다리기 때 문입니다. 만금을 다 준다고 해도 이 해진 비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㊹그러나 무릎 꿇고 호걸에게 보내면, 모두 버려 가지지 않고, 화난 눈을 크게

뜨고 콧등을 찡그리며 침을 뱉고 구역질합니다. 저는 몹시 얼굴이 붉어져 돌아와선 원망하며 고개 숙입니다. ④5천손(적녀)께선 기교를 관장하시면서, 저를 이토록 곤궁하게 만드시고, 끝내 제겐 기교를 주지 않으시니, 어찌 그리 혹독하십니까? ④6감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화를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저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남의 환심을 사는 자태로 저의 뺨뺨한 얼굴과 바꿔주십시오. 제 모난 마음을 갈라내시어 둥글게 고쳐주십시오. 둔한 혀를 빼내시고 말 잘하는 혀를 주십시오. 文辭는 완곡하고 부드럽게, 발걸음은 가볍고 날래게 만들어 주시고, 이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눈썹은 곱게 만들어 주십시오. 곱어있는 저를 원만하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현명하다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公, 侯, 卿, 士 및 다섯 나라의 屬長과 열 나라의 連帥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무궁토록 오래오래 부귀를 누리는 것입니까?¹⁶⁾

위의 내용을 장범 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因	果	因	①저는 매우 둔하여,
		果	②지혜로운 이도 ~ 용납하지 못합니다.
	果1	反	③천지의 도량은 바다와 산악을 포용하는데,
		正	④저의 몸은 작디작은데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16) “臣有大拙，智所不化，醫所不攻，威不能遷，寬不能容。乾坤之量，包含海岳，臣身甚微，無所投足。蟻適于垤，蝸休于殼。龜龜螺蚌，皆有所伏。臣物之靈，進退唯辱。彷徨為狂，局束為諂，吁吁為詐，坦坦為忝。他人有身，動必得宜，周旋獲笑，顛倒逢嘻。已所尊昵，人或怒之。變情徇勢，射利抵巇。中心甚憎，為彼所奇。忍仇佯喜，悅譽遷隨。胡執臣心，常使不移？反人是已，曾不惕疑。貶名絕命，不負所知。扑喇似傲，貴者啓齒。臣旁震驚，彼且不恥。叩稽匍匐，言語譎詭。令臣縮息，彼則大喜。臣若效之，曠怒叢已。彼誠大巧，臣拙無比。王侯之門，狂吠狴狂。臣到百步，喉喘顛汗，睚眦逆走。魄遁神叛，欣欣巧夫。徐入縱誕，毛羣掉尾，百怒一散。世途昏險，擬步如漆，左低右昂，鬥冒衝突。鬼神恐悸，聖智危慄。泯焉直透，所至如一。是獨何工，縱橫不卹。非天所假，彼智焉出？獨當於臣，恒使玷黜。沓沓齟齬，咨口所言。迎知喜惡，默則憎憐。搖唇一發，徑心中原。膠如鉗夾，誓死無遷。探心扼膽，踴躍拘牽。彼雖伴退，胡可得施！獨結臣舌，暗抑銜冤。擊皆流血，一辭莫宣。胡為賦授，有此奇偏？眩耀為文，瑣碎排偶，抽黃對白，吮哢飛走。駢四儷六，錦心綉口，宮沈羽振，笙篳觸手。觀者舞悅，誇談雷吼。獨溺臣心，使甘老醜。罌昏莽鹵，樸鈍枯朽。不期一時，以俟悠久。旁羅萬金，不鬻弊帚。跪呈豪傑，投棄不有。眉臆頰蹙，喙唾胸歎。大赦而歸，填恨低首。天孫司巧，而窮臣若是。卒不余畀，獨何酷歟？敢願聖靈悔禍，矜臣獨艱。付與姿媚，易臣頑顏。鑿臣方心，規以大圓。拔去啞舌，納以工言。文詞婉軟，步武輕便。齒牙饒美，眉睫增妍。突梯卷鬣，為世所賢。公侯卿士，五屬十連。彼獨何人，多享終天！”柳宗元，《柳河東全集》卷18，臺北，世界書局，1999年。

	果2	反	⑤개미는 개밋득에서 自適하고 ~ 숨을 곳이 있습니다.	
		正	⑥그런데 저는 만물의 영장인데도 ~ 모욕뿐입니다.	
	果3	正	⑦방황하면	
		反	⑧미쳤다고 하고	
		正	⑨조심하면	
		反	⑩아침한다고 하며,	
		正	⑪편안해하면	
		反	⑫속인다고 하고	
		正	⑬태연하면	
		反	⑭부끄러운 데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反	⑮남들도 몸이 있지만, ~ 넘어져도 좋게 보이줍니다.	
		正	⑯제가 존중하고 가깝게 여기는 이에게는	
		反	⑰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反	⑱어떤 이는 변절하여 ~ 빈틈을 뚫습니다.	
		正	⑲제 마음이 몹시 증오하는 이를	
		反	⑳남들은 뛰어나다 여깁니다.	
		正	㉑증오심을 참고 좋아하는 척하면	
		反	㉒듣기 좋은 칭찬이 따라 옵니다.	
		因 因2		㉓어찌하여 제 마음을 ~ 변치 않게 하십니까?
		果 果3	正	㉔남에게 반대하고 ~ 저버리지 않습니다.
正	㉕어떤 이는 손뼉치고 남을 조롱하니 오만한 듯한데,			
反	㉖귀한 분은 좋아하며 이를 보이며 웃습니다.			
正	㉗제가 옆에서 보고 놀라 떨리지만			
反	㉘그러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正	㉙머리 조아리고 기어 다니면서 ~ 부끄러워하지만,			
反	㉚그러는 그들은 매우 즐거워합니다.			
正	㉛제가 만약 흉내라도 내면			
反	㉜노한 눈길이 제게 모입니다.			
反	㉝그들은 실로 대단한 기교를 지녔는데			
正	㉞저의 둔함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正	㉟王侯의 문 앞에서 ~ 혼비백산 합니다.			
反	㊱그러나 신이 난 기교 좋은 자들은 ~ 홀어집니다.			
反	㊲세속의 길은 어둡고 ~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正	㊳단지 저에게만 ~ 쫓겨나게 하십니까?			

		反	㉓어떤 이들은 말도 많고 ~ 그럴 수 있겠습니까?
		正	㉔단지 천손(적녀)께선 ~ 차별이 있으십니까?
		反	㉕눈부시고 어지럽게 文彩를 이루고 ~ 올립니다.
		正	㉖그런데도 단지 제 마음만은 ~ 하셨습니다.
		正	㉗어리석고 어둡고 거칠어서, ~ 팔지 않을 것입니다.
		反	㉘그러나 무릎 꿇고 ~ 원망하며 고개 숙입니다.
因	因2		㉙천손(적녀)께선 기교를 관장하시면서, ~혹독하십니까?
果			㉚감히 바라오니, ~ 부귀를 누리는 것입니까?"

위의 내용은 매우 길고 복잡하다. 이를 다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因	果	因1	大拙이 있다
		果1	천지 넓어도 발붙일 곳 없다
		果2	모욕만 당한다
		果3	타인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처우도 다르다.
	因	因2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果	果3	타인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처우도 다르다.
	因	因2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果			나에게 巧를 달라

전체적인 구도는 '나는 大拙로 인해 힘드니(因)' '巧를 달라(果)'는 형식으로 因果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逐貧賦」와 동일하다. 다만 「逐貧賦」와 달리 因果 아래에 다시 복잡한 장법 구도를 갖고 있다. 우선 '나는 大拙로 인해 힘들다(因)'는 구도 속에는 '天孫이 나에게 大拙을 주어(因)' '내가 大拙함이 있다(果)'는 因果구도가 다시 겹쳐져 있다. 그 다음에는 大拙(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果)을 나열하였다. 이처럼 因果를 세 겹으로 구성하여 大拙로 인해 생기는 주인의 괴로움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층에 위치한 因果구도에서는 大拙로 인한 괴로움(果)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果1에서는 천지의 넓음과 나의 비좁은 입지를 대비하였고, 果2에서는 미물의 편안함과 자신의 굴욕을 비교했다. 마지막

으로 果3에서는 타인과 나의 완전히 상반된 관점과 처우를 설명했다. 이 세 개의 果 안에는 모두 正反法을 사용하여 자신(正)과 他物 혹은 타인(反)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곤궁한지를 설명하였다. 계속적으로 사용된 正反대립을 통해, 大拙로 인한 주인의 참담한 處境을 상세하고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逐貧賦」와 비교하였을 때, 「乞巧文」은 자신의 고통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正反法을 무려 17차례나 사용하면서 자신(正)과 他物 혹은 타인(反)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乞巧의 설득력과 간절함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인의 乞巧는 逐貧의 그것보다 더욱 강한 기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형세를 만들게 된다.

비록 그렇지만 장법 구도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우선 두 번째 층의 因果 구도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因果가 두 번 반복되어 진부한 느낌을 받게 한다. 두 번째로, 因에 비해 果의 내용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특히 果3에서는 무려 17차례의 正反法을 사용하여 자신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乞巧의 간절함을 전달하고 있지만, 장황하고 번잡할 뿐만 아니라 반복이 계속 된다는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正反 구도에서 正에서는 줄곧 주인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가, 果3의 正④에서는 돌연 자신의 신념과 포부를 자랑스럽게 언급하였다. 이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正反구도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위적이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다음은 주인의 乞巧에 대한 天孫의 응답을 보도록 하자.

①“天孫이 너에게 고하니, 네가 한 말들은 매우 고통스럽다. 네가 한 말은 내가 모두 잘 알고 있다. ②너는 스스로 길을 택하여 행하였고, 남들을 미워하여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③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 자신이 기약할 수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속이려 하는가? ④너는 부끄러움을 알아, 아양 떨고 아첨하는 것은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찮게 여기며,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하였다. ⑤마음에서 이미 정해 행하고 있거늘 어찌 헛되게 다른 것을 바라는가? ⑥네 마음을 견지하고 네 원칙을 지키면, 성공하면 크게 될 것이고 실패해도 비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지는 못한다. 목숨을 바쳐서 향상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라!”¹⁷⁾

위의 내용을 장법 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	과	①天孫이 너에게 고하니, ~ 잘 알고 있다.
	인	② 너는 스스로 길을 택하여 ~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과	③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 나를 속이려 하는가?
	인	④ 너는 부끄러움을 알아, ~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하였다.
	과	⑤ 마음에서 이미 정해 ~ 다른 것을 바라는가?
과		⑥ 네 마음을 견지하고 ~ 결코 의심하지 말라!

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인과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너 스스로 선택하여 잘 해오고 있다(인)’ 그러니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과)’라는 것이 天孫의 응답이다. 두 번째 층에는 다시 두 개의 인과구도가 형성되어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고 있으니(인)’ ‘지금의 불평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층에서는 ‘너는 매우 힘들다(과)’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인)’의 구도로 되어 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세 개의 인과구도를 형성하여 문장의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因果法 하나만을 세 겹으로 중첩하여 다양한 장법 구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두 번째 층에 동일한 내용으로 因果를 반복하여 주인의 乞巧에 대한 강한 반론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天孫의 응답은 단지 ‘스스로 선택하여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다소 밋밋한 내용을 전달하여, 주인의 乞巧에 대한 강한 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세를 형성할 뿐이다. 이러한 天孫의 응답은 주인의 乞巧와 강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하여 氣勢적으로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뒤에 주인이 “아아, 하늘의 命은 중도에 바꿀

17) “天孫告汝, 汝詞良苦, 凡汝之言, 吾所極知. 汝擇而行, 嫉彼不爲, 汝之所欲, 汝自可期. 胡不爲之, 而誑我爲! 汝唯知恥, 諂貌淫詞, 寧辱不貴, 自適其宜. 中心已定, 胡妄而祈? 堅汝之心, 密汝所持, 得之爲大, 失不汗卑. 凡吾所有, 不安汝施, 致命而昇, 汝慎勿疑.” 同注 16.

수는 없기에, 흐느끼며 절하고 기꺼이 받으니, 처음에는 슬프더니 뒤에는 기뻐다. 일생동안 둔함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다 한들, 그 누가 근심하겠는가!”¹⁸⁾라고 하면서 乞巧를 후회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않아 보이고, 뜬금없는 행동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逐貧賦」의 그것과 유사하다. 결국 주인의 乞巧 내용이 主가 되고 天孫의 응답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문장의 대칭성과 대립구도 형성에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¹⁹⁾

4. 韓愈 「送窮文」의 구도 분석

韓愈의 「送窮文」은 「逐貧賦」와 「乞巧文」의 一問一答의 형식과는 달리 二問二答의 구도로 되어 있다. 「逐貧賦」와 「乞巧文」은 모두 주인이 먼저 逐貧과 乞巧를 요구하기 때문에 一問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길고 기세도 강하지만, 「送窮文」은 이와 달리, 처음 주인이 送窮을 권유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기세로 시작한다.

원화 6년 정월 을축 그믐, 주인이 하인 성을 시켜, 버들가지 엮어 수레를 만들고, 풀을 묶어 배를 만들어, 말린 쌀과 식량을 싣고, 소에 멍에 매고 배에 돛을 올려, 가난귀신에게 세 번 읍하며 말했다. “그대 얼마 있다 떠난다고 들었네. 비루한 이 몸, 그대 가는 길 묻지 못하고, 단지 배와 수레를 마련하여, 말린 쌀과 식량을 실었으니, 길일과 좋은 때 골라 떠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 순조로우리. 자네, 밥 한 그릇 먹고, 자네 술 한 잔 마시고, 친구 끌고 동무 데리고, 옛 곳 떠나 새 곳 향해, 먼지 몰고 바람 당겨, 번개와 앞 다투어 내달려 가시게나. 자네는 머물렀음을 원망하지 않을 테고, 나는 보내주는 은혜 베풀게 되니, 자네들 이제 떠나시겠는가?”²⁰⁾

18) “嗚呼! 天之所命, 不可中革. 泣拜欣受, 初悲後懌. 抱拙終身, 以死誰揚” 同注 16.

19) 이러한 비대칭은 장법 구도에서 뿐만 아니라 문량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乞巧를 위한 상황설명을 뺀 순수한 乞巧의 내용과 天孫의 응답에 할애한 글자는 각각 553:96으로 약 6:1의 비율을 보인다.

20) “元和六年正月乙丑晦, 主人使奴星結柳作車, 縛草爲船, 載糗輿糧, 牛繫軛下, 引帆上檣. 三揖

주인은 비교적 잔잔한 어조로 窮鬼에게 떠날 것을 권하고 있다. 특별한 장법 구도도 없으며 강한 불만 토로와 거센 추궁과 압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에 대한 窮鬼의 응답을 보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 이러했다. “①내가 자네와 함께 지낸 것이, 이미 사십 년이 넘었다네. 자네 아직 어릴 적에, ②나 그대 우둔하다 한적 없고, ③자네 책 읽고 발 갈 때에, 관직 찾고 명성 쫓을 때, ④오직 자네만을 따르며, 처음 마음 변한 적이 없다네. ⑤문에 있는 문귀신 집에 있는 집귀신, 나를 꾸짖고 나를 호통칠 때, ⑥굴욕을 참아내고 그들에게 아첨해도, 다른 마음먹지 않았다네. ⑦자네 남방으로 쫓겨 내려가서 덥고 뜨겁고 습하고 찌는 날씨, ⑧고향 떠나 태양 살이 온갖 귀신 깔보았지. ⑨자네 대학에서 가르치던 4년 동안, 아침에는 푸성귀에 저녁에는 소금반찬, 오직 나만이 자네를 돌보았고, ⑩남들 모두 자네를 꺼려했네. ⑪처음 만남부터 이날 이때까지, 언제 한 번 등진 적이 없고, 다른 생각은 품지도 않았으며, 떠난다는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⑫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지금 내게 떠나라고 말하는가? ⑬그대 분명 혈뜬 말 믿고서, 나와 틈이 생긴 것이로고. ⑭나는 귀신이며 사람이 아니거늘, 수레와 배는 어디에 쓸 것이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는데, 말린 쌀과 식량 또한 아무 소용없으리. 훌훌단신 이 한 몸뿐, 친구와 동무는 누구란 말이요? 자네가 만약 자세히 안다면, 친구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있겠소? 자네가 모두 설명할 수 있다면, 내 자네 지혜롭다 하리오. 내 본 모습 모두 드러났으니, 내가 무엇을 숨기겠소!”²¹⁾

위의 내용을 장법 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窮鬼而告之曰：“聞子行有日矣，鄙人不敢問所塗，竊具船與車，備載糗糧，日吉時良，利行四方，子飯一盂，子啜一觴，攜朋挈儔，去故就新，駕塵曠風，與電爭光。子無底滯之尤，我有資送之恩。子等有意於行乎？”韓愈，『韓昌黎文集校注』卷8，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년.

- 21) “吾與子居，四十年餘，子在孩提，吾不子愚。子學子耕，求官與名，惟子是從，不變于初。門神戶靈，我叱我呵，包羞詭隨，志不在他。子遷南荒，熱爍溼蒸，我非其鄉，百鬼欺陵。太學四年，朝齋暮鹽，惟我保汝，人皆汝嫌。自初及終，未始背汝，心無異謀，口絕行語。於何聽聞，云我當去？是必夫子信讒，有間於予也。我鬼非人，安用車船！鼻嗅臭香，糗糧可捐。單獨一身，誰為朋儔！子苟備知，可數已不？子能盡言，可謂聖智。情狀既露，敢不迴避？”同注 20.

正	目1	反	①내가 자네와 함께 지낸 것이, ~ 자네 아직 어릴 적에,
		正	②나 그대 우둔하다 한적 없고,
	目2	反	③자네 책 읽고 발 갈 때에, 관직 찾고 명성 쫓을 때,
		正	④오직 자네만을 따르며, 처음 마음 변한 적이 없다네.
	目3	反	⑤문에 있는 문귀신 ~ 나를 호통칠 때,
		正	⑥굴욕을 참아내고 ~다른 마음먹지 않았다네.
	目4	反	⑦자네 남방南方으로 쫓겨 내려가서 ~ 찌는 날씨,
		正	⑧고향 떠나 타양 살이 온갖 귀신 깔보았지.
	目5	正	⑨자네 태학太學에서 가르치던 ~ 자네를 돌보았고,
		反	⑩남들 모두 자네를 꺼려했네.
	凡		⑪처음 만남부터 이날 이때까지, ~ 꺼낸 적도 없는데,
	反		⑫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떠나라고 말하는가?
	果		⑬그대 분명 헐뜯는 말 믿고서, ~ 틈이 생긴 것이로고.
	因		⑭나는 귀신이며 사람이 아니거든, ~ 무엇을 숨기겠소!”

이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正	나는 그대에게 잘했다
反	어찌 떠나라 말하는가
果	그대는 나를 헐뜯는 말을 믿었다
因	그대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逐貧賦」와 「乞巧文」이 주인이 貧과 天孫에 대한 불평을 하며 그들을 압박하는 것과는 달리, 「送窮文」은 도리어 窮鬼가 주인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正反구도와 因果구도를 겹쳐 사용하였으며, ‘나는 그대에게 잘했는데(正), 어찌 떠나라고 하는가?(反)’, 이는 분명 ‘남이 한 헐뜯을 들은 것이며(果), 그대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因)’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장법 구도는 세 겹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선 正反法을 통해 자신의 충실함(正)과 주인의 배신(反)을 대립시켜, 주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불평 없이 충심을 다했으나 결국 떠나라 추궁당하는 窮鬼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正反法의 正 아래에는 다시 凡目法

을 사용하였다. 총괄에 해당하는 凡에서는 窮鬼가 시종일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고 강조하였고, 모두 다섯 개의目を 설정하여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였다. 다섯 개의目에서는 韓愈의 출생부터 관직생활과 꺾적생활에 이르기까지 상호 중복 없이 韓愈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각각의目 아래에는 다시 韓愈의 연약함과 불우한 處境을 反으로 하고 窮鬼의 충성을 正으로 설정하여 正反 대립을 통한 窮鬼의 초지일관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장법이 층차적으로 사용하여 문장이 산만하지 않으며 장법 사용의 지루한 반복도 찾아보기 힘들어 깔끔하고 정련된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립」 장법과 「조화」 장법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법은 크게 「대립」과 「조화」의 장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因果, 凡目 등과 같은 장법은 因果, 凡/目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연결되지만, 正反과 같은 경우는 正과 反이 서로 대립관계이므로 「대립」 장법에 속한다.²²⁾ 「對立」 장법을 통해서는 陽剛의 풍격이 형성되고, 「調和」 장법을 통해서는 陰柔의 풍격이 형성된다.²³⁾ 그런데 위의 문장은 각각의 층차별로 「대립」-「조화」-「대립」 장법을 번갈아 사용하여 대립 속에 조화, 조화 속의 대립의 기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위의 두 문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주인의 응대를 보자.

주인이 그 소리에 대답하였다. ①“그대 진정 내가 모른다 생각하오? 자네 동무와 자네의 친구는, 여섯도 아니요 넷도 아니며, 숫자 열에서 다섯을 떼어 내고, 딱 찬 일곱에서 둘을 빼 것이네. 주관하는 바가 서로 달라, 내가 혼자 이름을 붙였다네. ②그들은 나로 하여금 손을 움직이면 국그릇을 엮게 하고, 말을 꺼내면 문제를 일으키게 하며, 나를 꼴사납게 만들고, 내가 한 말을 우습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모두 그대들이 바라는 바요. ③첫째 이름은 智窮이라. 그는 항상 억세고 강건하여, 둥글둥글한 것은 미워하고 반듯한 것은 좋아하며, 간사함을 싫어하고 남을 해치지 못한

22) 調和章法에는 因果, 凡目, 賓主, 泛具 등이 있으며, 對立章法에는 正反, 抑揚, 立破 등이 있다.

23) “對立은 강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강건하고 광활하며 아름다운 느낌을 만들어 陽剛의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에 반해 調和는 양자의 성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미하고 융합되며 잔잔하고 고요한 정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陰柔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因爲「對比」會形成極大的反差, 因此有強健, 闊達, 華美之感, 將使作品趨向於「陽剛」. 而「調和」則因質性之相近, 產生優美, 融洽, 鎮靜, 深沉等情緒, 自然會使作品趨向於「陰柔」.)” 同註 9, 349쪽.

다네. 둘째 이름은 학궁이라. 算術과 名物을 경시하고, 깊고 그윽한 이치를 캐내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神妙함의 핵심을 찾아내지. 셋째 이름은 文窮이라. 제대로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 문장을 쓰면 이상하고 괴이하며, 지금의 시대에 쓰이지도 못하고, 단지 혼자 즐거워할 뿐이라네. 넷째 이름은 命窮이라. 본 마음과 겉모습이 서로 달라, 차림은 추해도 마음은 비단 같아, 이득을 챙길 때는 남 뒤에 서고, 질책을 당할 때는 남 앞으로 나선다네. 다섯째 이름은 交窮이라. 친구를 위한다면 살 때 내고 빼 깎으며, 심장을 드러내고 간조차도 빼내주리. 까치발을 하고 보답을 기다리나, 돌아오는 것은 원수의 원망이라. ④여기 말한 다섯 귀신 나의 다섯 근심이니, 나를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하며, 비난을 일으키고 비방을 초래하지. 자네들이 나를 명칭하게 만들어, 아무도 내 몸에서 다섯 귀신 떼지 못해, 아침에 눕우친 여러 가지 나의 잘못, 저녁 되면 또다시 되풀이하게 되네. ⑤윙윙대는 파리와 빌어먹는 개처럼 그들을 쫓아내도 또 다시 돌아오네.”²⁴⁾

위의 내용을 장법 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凡1	①“그대 진정 내가 모른다 생각하오? ~ 이름을 붙였다네.
凡2	②그들은 나로 하여금 손을 움직이면 ~ 그대들이 바라는 바요.
目1	③첫째 이름은 지궁智窮이라. ~ 돌아오는 것은 원수의 원망이라.
目2	④여기 말한 다섯 귀신 ~ 또다시 되풀이 하게 되네.
目3	⑤윙윙대는 파리와 빌어먹는 개처럼 ~ 또 다시 돌아오네.”

위의 장법 구도는 단층으로 매우 간단하다. 韓愈는 凡目法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붙여 있는 窮에 대해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凡1에서는 窮의 숫자를 밝혔고, 凡2에서는 窮의 목적과 작용을 개괄했다. 이에 대해 目1, 目2, 目3에서는 각각

24) “主人應之曰：‘子以吾爲眞不知也邪？子之朋儔，非六非四，在十去五，滿七除二，各有主張，私立名字，捩手覆羹，轉喉觸諱，凡所以使吾面目可憎，語言無味者，皆子之志也。其名曰智窮，矯矯亢亢，惡圓喜方，羞爲姦欺，不忍害傷。其次名曰學窮，傲數與名，摘抉杳微，高挹群言，執神之機。又其次曰文窮，不專一能，怪怪奇奇，不可時施，祇以自嬉。又其次曰命窮，影與形殊，面醜心妍，利居衆後，責在人先。又其次曰交窮，磨肌戛骨，吐出心肝，企足以待，眞我讎冤。凡此五鬼，爲吾五患，飢我寒我，興詆造訕，能使我迷，人莫能問，朝悔其行，暮已復然，蠅營苟苟，驅去復還。’” 同注 20.

‘五窮’의 이름과 주관하는 분야, ‘五窮의 작용’, ‘五窮의 특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일목요연하면서도 정련된 장법 사용을 통해 窮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궁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것은 사실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어 送窮의 타당성과 염원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不遇之嘆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인의 말을 듣고 窮鬼는 처음 응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섯 귀신 저마다 큰 눈에 혀 내밀고, 쿵
 쿵쿵 쿵 쿵 쿵 쿵 쿵 쿵 넘어지고 엎어지고, 손뼉 치고 발 구르며 깔깔 웃고 쳐다
 보더니, 천천히 주인에게 말한다.²⁵⁾

窮鬼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의 응대에서 보인 근엄하고 비장한 분위기와 크게 다르다. 경박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주인의 대답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인의 주장과 강한 대답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窮鬼의 두 번의 대답은 각각 다른 특색을 갖추게 되고 기세의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어서 窮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자네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하는 일도 모두 알고 있어, 우리를 내몰아 떠나가게 하는 것은, 자그마한 총명함에 커다란 어리석음이다. ② 사람이 한 평생 얼마나 살리오? 우리가 그대의 명성을 세워놓고, 百世가 지나도록 소멸하지 않게 했네. ③小人和 君子는 마음이 같지 않아, 세상과 못 어울려야 하늘과 통한다네. ④그대는 玉笏을 가져다가 양가죽과 바꾸고, 맛난 음식 싫증나서 쌀 찌기 찾는구려. ⑤남들이 그대를 우리보다 잘 알겠소? 우리가 비록 그대에게 버려져도, 우리는 차마 그대를 못 떠나네. ⑥나의 말이 미덥지 않거든, 『詩』와 『書』를 한번 찾아보시게나.”²⁶⁾

위의 내용을 장법 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5) “言未畢，五鬼相與張眼吐舌，跳踉偃仆，抵掌頓脚，失效相顧。徐謂主人曰” 同注 20.

26) “子知我名，凡我所爲，驅我令去，小點大癡。人生一生，其久幾何？吾立子名，百世不磨。小人君子，其心不同，惟乖於時，乃與天通。攜持琬琰，易一羊皮，飫於肥甘，慕彼糠糜。天下知子，誰過於予？雖遭斥逐，不忍子疏。謂予不信，請質『詩』·『書』。” 同注 20.

因	主	果	① “자네가 이미 우리의 이름 알고, ~ 어리석음이라.
		因	② 사람이 한 평생 얼마나 살리오 ~소멸하지 않게 했네.
		因	③ 소인小人과 군자君子는 ~ 하늘과 통한다네.
果	賓		④ 그대는 옥홀玉玦을 가져다가 ~ 쌀 찌끼 찾는구려.
			⑤ 남들이 그대를 우리보다 잘 알겠소? ~ 못 떠나네.
			⑥ 나의 말이 미덥지 않거든, ~ 찾아보시게나.”

위 문장의 전체적인 구도는 “그대의 생각은 크게 어리석은 것이니(因), 우리는 그대를 떠나지 않겠다(果)”는 것이다. 因果 구도 안에는 각각 賓主法을 사용하였다. 因에서는 ‘옥홀을 가져다 양가족과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주인의 “작은 총명함의 큰 어리석음(小點大癡)”을 부각시켰고, 『詩』와 『書』의 내용들을 통해 신의를 지키는 窮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賓主구도 아래에는 다시 두 개의 因果구도를 사용하여 窮鬼의 주장이 합당함을 강조했다. 因果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賓主구문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문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네 겹의 장법 구도를 사용하면서도 중복이나 반복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두 네 개의 調和 章法만을 사용하여 온유한 기세를 형성하면서 窮鬼의 말에 설득력이 提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인이 送窮의 의지를 거두는 부분과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자, 주인은 기운이 빠져 머리를 떨어뜨리고, 두 손을 올려 잘못을 인정하며, 수레를 태우고 배를 불사르며, 귀신들을 모셔다 뒷자리에 앉혔다.”²⁷⁾라고 기술하여, 간략한 설명으로 주인의 후회를 넉넉히 드러내고 있다. 온유한 기세로 완곡하게 送窮의 의지를 철회함으로써 처음 주인이 완곡하게 送窮을 권유하는 부분과 구도 상의 대칭을 이루게 되면서 정제된 형식미를 보여주고 있다.²⁸⁾

전체적으로 韓愈의 「送窮文」은 장법 구도상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正反, 凡目, 因果, 賓主 등의 장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중복과 반복이

27) “主人於是垂頭喪氣, 上手稱謝, 燒車與船, 延之上座” 同注 20.

28) 대등한 기세는 문장구도에서뿐만 아니라 글자 수에서도 나타난다. 主人과 窮鬼의 二問二答의 글자 수는 각각 73:167:209:88이어서 대화의 길어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등한 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각 단락마다 서로 다른 장법을 구사하고 있어 다채롭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세 번째는 「逐貧賦」와 「乞巧文」에 비해 주인과 궁귀의 대립이 강하게 형성되고 마지막의 주인의 送窮 의지 철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5. 나오며

장법 구도 분석을 통해, 柳宗元의 「乞巧文」과 韓愈의 「送窮文」은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장법 활용적인 측면이다. 「乞巧文」에서는 장법 활용이 비교적 단조롭다. 단지 因果法과 正反法만을 사용하였으며, 因果를 세 겹으로 중복하거나 같은 층차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因果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正反法은 무려 17차례나 반복 사용한 것 역시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단조로운 패턴의 장법 활용은 자칫 독자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送窮文」의 장법 활용은 다양하다. 正反法, 因果法, 凡目法, 賓主法을 고루 사용하였으며, 送窮을 바라는 주인의 첫 대화에 장법 특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세 개의 대화에서 사용한 장법 구도가 모두 다르다. 또한 중복이나 반복 없이 문장 구도의 정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窮鬼의 처음 대화 내용에서는 調和장법과 對立장법을 번갈아 사용하여 陽剛과 陰柔의 다양한 기세를 형성하고 있다. 「送窮文」에서 보여준 다양한 장법활용은 문장의 굴곡과 변화의 美로 연결되어, 「送窮文」이 「乞巧文」에 비해 글자 수는 적지만 보다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²⁹⁾

다음은 장법 활용을 통한 기세 형성의 측면이다. 「逐貧賦」는 장법활용상의 적절성과 긴밀성이 떨어져 逐貧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부족하였고 세태를 비판

29) 세 작품에서 설명 부분을 제외한 대화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 수는 다음과 같다.

	主人	貧/天孫/窮鬼	主人	窮鬼	총자수
「逐貧賦」	200	154			354
「乞巧文」	553	96			649
「送窮文」	73	164	209	88	537

하는 기세도 다소 약하게 느껴진다. 더불어 貧의 대화 역시 구체성과 설득력이 떨어져 결국 주인의 逐貧을 철회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에 비해 「乞巧文」에서는 다수의 正反法을 사용하여 고통을 부각시키며 乞巧의 강한 염원을 드러냄과 동시에 세태에 대한 불평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乞巧의 염원에 비해 天孫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완곡하여 양자가 강한 대립을 형성하지 못하여, 주인의 乞巧 후회 역시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逐貧賦」와 「乞巧文」 모두 강한 두 기세의 충돌 없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送窮文」에서는 窮鬼의 첫 번째 응답부터 강한 기세로 주인을 몰아붙이다가 주인의 첫 번째 대답과 충돌하며 대립을 형성한다. 이어 窮鬼의 두 번째 응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送窮 철회로 연결된다. 양자의 기세가 대등하게 형성되어 부딪히다가 융합되는 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세의 곡선이 천천히 상승하다가 가라앉는 자연스러운 형국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텍스트에 대한 구도 변화의 측면이다. 「乞巧文」은 「逐貧賦」의 一問一答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주인의 강한 기세와 天孫의 약한 어조의 剛-弱 구도 역시 「逐貧賦」의 그것과 유사하다. 「送窮文」은 一問一答을 단순히 二問二答으로 변형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乞巧文」의 「主人(強)」「天孫(弱)」의 구도와 달리 「送窮文」은 「主人(弱)」「窮鬼(強)」「主人(強)」「窮鬼(弱)」의 구도를 갖고 있어, 기세의 형성과 주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원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乞巧文」에서는 「逐貧賦」와 같이, 주인의 懷才不遇의 한탄과 세태의 비판을 모두 주인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送窮文」에서는 한탄과 비판, 심지어 자기 자랑 역시 주인과 窮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그 전달하는 방식 역시 「乞巧文」에서는 단순히 正反法의 正反 대비만을 통해서 하던 것을 「送窮文」에서는 正反法의 대립장법을 사용해서 할 뿐만 아니라, 凡目法과 因果法의 조화장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찰해 보았을 때, 문장의 구도적인 측면에서 「送窮文」이 「乞巧文」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그렇지만 이는 문장 구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한 제한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의 평가는 또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林紓, 『韓柳文研究法』, 臺北, 廣文書局, 1980년.
吳文怡 編, 『韓愈資料彙編』, 臺北, 學海出版社, 1984년.
嚴可均校輯,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北京, 中華書局, 1995년.
羅聯添, 『唐代四家詩文論集』, 臺北, 學海出版社, 1996년.
韓愈撰, 馬其昶校注, 『韓昌黎文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년.
仇小屏, 『文章章法論』, 臺北, 萬卷樓, 1998년.
柳宗元撰, 楊家駱主編, 『柳河東全集』, 臺北, 世界書局, 1999년.
仇小屏, 『篇章結構類型論(上下)』, 臺北, 萬卷樓, 2000년.
仇小屏, 『章法新視野』, 臺北, 萬卷樓, 2001년.
陳滿銘, 『章法學新裁』, 臺北, 萬卷樓, 2001년.
陳滿銘, 『章法學論粹』, 臺北, 萬卷樓, 2002년.
陳滿銘, 『章法學綜論』, 臺北, 萬卷樓, 2003년.
羅聯添編, 『韓愈古文校注彙集』, 臺北, 國立編譯館, 2003년.
吳文治編, 『柳宗元資料彙編(上下)』, 北京, 中華書局, 2004년.
柳宗元지음, 오수형 외 옮김, 『柳宗元집』, 서울, 소명출판, 2009년.
이주혜, 「悲士不遇의 전통과 韓愈의 設論體 辭賦」, 『중국어문학논집』 45, 2007년 8월.

〈中文提要〉

本论文要根据於章法学的分析法探讨柳宗元「乞巧文」与韩愈「送穷文」结构的优劣。「乞巧文」本於扬雄「逐贫赋」一问一答结构,「送穷文」则将「逐贫赋」改为二问二答,而且,二人所运用的章法结构也极为不同。

首先,在运用章法结构方面,柳宗元只使用因果法与正反法,而且使用章法上有一些反复和重复,程现出章法运用的单调一面。与他相比,韩愈所使用的章法比较风富多样。韩愈使用正反法,因果法,凡目法,宾主法的多种章法。而且,将对比章法与调和章法奇妙地安排在同一结构里面,使文章具既有阳刚也有阴柔的风格。

其次, 在文章氣勢方面, 「乞巧文」的主人乞巧的內容, 其篇幅較長, 文章氣勢也強. 相比之下, 天孫比較委婉的勸勉主人, 無法形成兩者對立的氣勢. 「送窮文」則窮鬼強烈地對抗主人送窮的願望, 主人也詳細的揭露出窮鬼的丑陋面目, 形成強烈的對立局面. 之後, 經過窮鬼的勸勉和說服, 最後達到主人取消送窮的想法. 在較整齊的結構中, 有機的安排對立和調和的氣勢.

最後, 在創新方面, 「乞巧文」採取「逐貧賦」一問一答的結構, 主要依靠正反法, 發泄出主人憤世嫉俗的不平. 除此以外, 其他方面沒有特別的改變. 韓愈不但改變一問一答結構, 而且將「主人/強」「貧/弱」的模式改為「主人/弱」「窮鬼/強」「主人/強」「窮鬼/弱」的模式. 不僅如此, 其憤世嫉俗的不平, 運用多種章法, 藉由主人与窮鬼的對話, 豪無保留的發泄出來.

考查以上幾個方面的比較, 筆者可以在文章結構方面韓愈的「送窮文」優於柳宗元的「乞巧文」.

관련어: 「逐貧賦」, 「乞巧文」, 「送窮文」, 文章結構, 章法學

이 논문은 2015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